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다름으로부터의 이해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문화예술교육 통합적 접근을 위한 교사연수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다름으로부터의 이해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다름으로부터의 이해

발행인	조 주 연
발행일	2007. 3
발행처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홈페이지	www.tea-pot.co.kr
연락처	T 02-332-8823 F 02-332-8824
연구/개발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담당부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인력양성팀
등록번호	KACES-0720-R00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본 연구물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다름으로부터의 이해' 연수프로그램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3월

■ 연 구 진

- 책임연구원 조 주 연 /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대표
- 공동연구원 남 정 / 벼레별 기억 대표
백 현 주 / 희망제작소
양 철 모 / 바라 스튜디오 대표
- 보조연구원 조 성 희 · 김선미 /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대표 조 주 연

목 차

I.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	1
1. 개발의 필요성	3
2. 개발의 목적과 방법	4
II. 프로그램 개발 방향	5
1. 교사연수프로그램의 통합적 접근 방법	7
2.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10
3. 주제중심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개발방향	15
4. 문화예술 교사연수프로그램 사례조사	17
III. 프로그램 설계	29
1. 설계 원칙	31
2. 설계 내용	33
3. 운영 계획	41
IV. 활용방안	43
1.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	45
2. 교육 현장에서의 기대효과	47
V. 결론 및 제언	49
참고문헌	53

I.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

1. 개발의 필요성
 2. 개발의 목적과 방법
-

I.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

1. 개발의 필요성

문화다양성이 일상적 가치 체계로 수용되고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와 논의의 토대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입시 경쟁 일변도의 교육 현장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문화와 삶과 일상에 기반한 인식과 감수성을 담아내는 교육을 실천하는 일은 요원해 보인다. 이에 일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고, 감성의 회복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다양한 삶의 지표를 스스로 찾아 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는 문화예술교육은 이러한 교육의 현실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다양성 및 다름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이끌어 내어 의미 있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교사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은 시대적 요구인 동시에 새롭고 풍성한 교육적 자원을 축적하는 일이 되리라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과 학교의 다양한 교육영역과 만나 소통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교사연수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장르와 장르가 만나는 한계에서 벗어난 교과 및 장르 통합적인 접근과 새로운 교육적 방법론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본 프로그램 개발의 취지는 이를 해결하는데 있으며, 그 실마리는 하나의 주제중심 프로그램으로 여러 교육 영역이 시범적 소통의 문을 열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행 교사연수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교육적 자극을 도모하고,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방법론을 통한 본격적이고 독창적인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개발의 목적과 방법

본 사업의 목표는 교과 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문화예술분야 교사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예술체험'이라는 협소한 차원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는 전문 장르별 구분에 근거해 그 내용의 깊이와 범위가 '맛보기 경험'에 머물러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에 근거해 교사나 학생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을 토대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은 사회, 문화, 예술에 보다 근본적이면서 현실적인 다음 과제들에 답을 해 나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 인간의 생태학적 삶과 사회적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통찰력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과제. 둘째 지역사회와 연결되면서 사회와의 공동작업으로 현실적 문제를 차곡차곡 해결해 나가는 문화예술교육 과제. 셋째 성찰, 서스펜스, 경이로움을 통해 상상력의 밀도를 높이는 시정(詩情)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과제. 넷째 '생산 한다'의 고차원적 해석을 통해 경제와 문화의 생산과 소비를 다시 만나게 하는 문화예술교육 과제 등이다. 위 과제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교사를 위한 문화예술 연수프로그램 개발 방향이 만들어 지고, 실행 과정을 통해 현행 교육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교육 과정의 한계를 극복하여 교사들이 문화예술의 본질과 제 문제를 이해하고, 그 내용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와 방법론의 구현을 위해 공공적 문화기획과 시민문화의 통합적 교육실천을 꾸준히 해 온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팻',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관점에서 디자인교육 활동을 꾸준히 해 온 '벼레별 기억'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바라스튜디오,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희망제작소의 백현주씨가 결합하여 연구, 개발, 운영을 통합적 시각으로 연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학자, 문화기획자, 문화예술정책연구자, 교사 그룹을 공동 연구진으로 구성, 연수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고, 사후 개발자-수강자간의 상호작용을 자극하는 매개 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향후 공동연구진이 참여하는 관련 프로그램에는 저작권을 개방,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Ⅱ. 프로그램 설계

1. 교사연수프로그램의 통합적 접근 방법
 2.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3. 주제중심 교사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4.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사례조사
-

II. 프로그램 개발 방향

1. 교사연수프로그램의 통합적 접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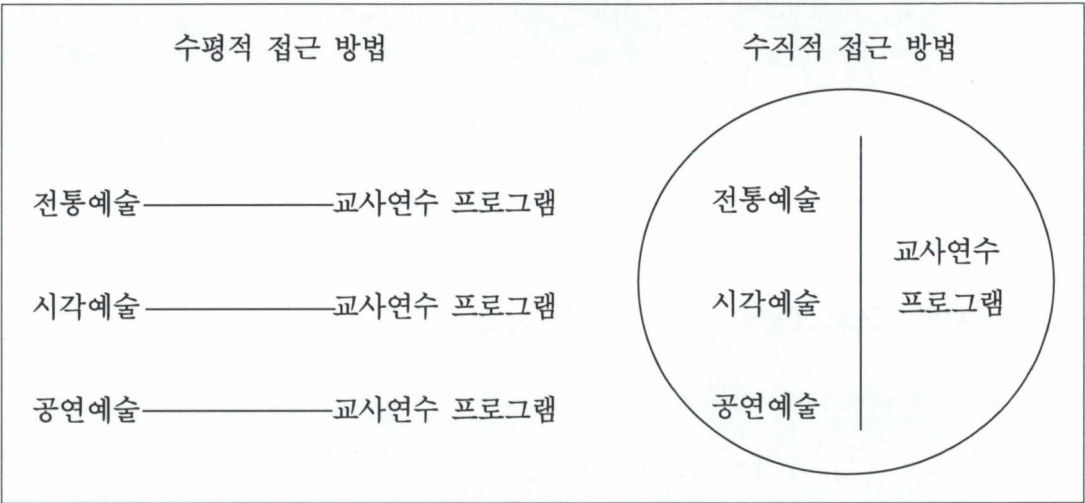
1)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사연수프로그램은 전문화된 장르와 교육주체들이 만나는 프로그램 중심이다. 주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의 다양한 범주에 속해있는 세부장르를 통해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다양한 연구보고서와 사례들이 광범위하게 소통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그램 기획 주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통해 교사연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이바지해 왔다. 전문장르만으로 프로그램 기획에 접근하는 방법은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

가령, 전통예술은 한국의 문화적 원형으로 전통의 보존과 문화적 가치로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전통의 가치가 문화예술교육을 전부 포괄할 수는 없다. 또한 전통예술이 지닌 가치의 중요성만 언급하다 보면 문화예술교육 다양성의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통예술이 문화예술교육에 어떤 맥락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전통예술을 통해서 교육환경과 사회 환경에서 어떤 응용이 가능한지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타 장르 문화예술교육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장르간의 통합적 이해가 핵심을 차지해야 한다.

또한 통합적 이해와 접근을 통해 기존 문화예술교육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수직적 접근도 필요하다. 수직적 접근이란 문화예술 장르간의 통합과 경계 허물기를 근간으로 교사연수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연수의 참여자는 교육매개자로서 교사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교육방법을 도모하고 적용 및 실천하는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세부적이고 전문화된 프로

그럼 기획과 함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2) 통합적 접근 방법

예를 들어, ‘꿈을 가져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교사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자. 참여자에게 20년 후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글을 적게 한다.

- 상상한 글쓰기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다. (문학적 접근)
- 그린 그림을 토대로 무대를 만들어 꾸미고 실제로 공연한다. (시각예술로서의 접근)
- 교사들이 꿈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각 장르의 요소를 적절히 조합시키는 것이다. (시각예술+공연예술로서의 접근)

이처럼 통합적 접근 방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장르별 소재를 궁극적인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재구성의 주체인 교사들은 상상력을 통해 스스로 문화예술을 즐기고 생산하며 소통하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정에는 학습자의 학습 욕구와 사회 기대와의 조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간 학문 중심, 문제 중심, 활동 지향적인 접근, 기초 교육과 시민 양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야 한다. 이러한 교육 과정적 의미는 교육을 제도적인 학교 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구체화 되어 있는 지식 위주 교육보다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반교과적인 교육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에 있어서는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는 분과교육 역시 옳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통합이 옳다.”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통합교과용 도서구성의 배경과 이론적 기초』 중에서 발췌>

위의 글에서 연구자는 교과과정 통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교과과정 혹은 교육내용의 통합이란 철저히 실재하는 삶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며, 학교의 안과 밖을 넘나들고 가로지르는 다채로운 영역을 그 출발로 삼아야 한다. 일상과 교실을 연결하는 다양한 경험들이 상호 작용하는 총체적인 접근은 곧 교과과정의 통합을 의미하고 이는 교사연수프로그램의 통합적 접근 방법과 맥을 같이 한다.

삶으로부터 출발하는 주제중심의 통합적 접근 방법을 통해 참여 교사들은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스스로 교과 과정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연계를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2.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1) 초등학교 교사의 요구 분석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일방적인 헌신이나 봉사처럼 의무나 책임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해요. 우리 교사들에게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기 힘들어요. 한국사회가 결코 교사의 다양한 문화를 허용하지 않아요. 교사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교사연수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전문인력 개발 지원 협조가 필요합니다. 교사들 스스로 문화예술을 즐기고 생산하고 소통하는 맛을 알아야 합니다. 교사가 느껴야 아이들에게 맛과 멋을 함께 나누겠지요.”

〈안면 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아르떼 인터뷰 기사 발췌〉

〈안면도 프로젝트〉, 〈산길 프로젝트〉 등 학교 현장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교육 수업사례를 실천해온 김인규 교사의 위의 인터뷰 내용처럼 교과과정에 바로 적용하기에 앞서 교사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가 즐기고 흥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확보된 즐거움은 교육현장에서 빛을 발할 것이며, 풍부한 상상력으로 확장될 수 있다.

교사대상 연수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짚어보고 그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프로그램의 대상자인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몇 가지 설문을 준비하였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은 현재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고 있다. (나여훈 교사는 현재 사당초등학교에서 미술교과를 담당하고 있으며 디자인교육 새아의 ‘미술교사를 위한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영주 교사는 초등국어교과모임을 주도하며 직접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연수를 꾸렸고,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경란 교사는 전국미술교과모임에서 활동 중이며 디자인교육 새아와 밀머리미술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디자인연수의 자문을 담당했다.)

이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내용은 교사연수프로그램 참여의 시간적 제약 부분이다. 교사들이 정규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 또 시간을 내어 연수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기획진이 설정한 주제와 방향에 대한 질문부터 연수 환경 등 물리적 요소에 대한 내용까지 간략한 질문을 통해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토대로 연수의 방향을 잡아나갔다.

아래는 이를 위해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설문한 항목들이다.

〈설문조사 문항〉

- 질문 1. '다름' 혹은 '다문화'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연수 혹은 강의프로그램의 경험
- 질문 2. 시범운영 시간인 3시 ~ 7시 사이에 교사들의 참석가능성
- 질문 3. 교과과정 속에서 '다름'이나 '다문화'와 연결될 수 있는 내용 찾기
- 질문 4.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교과과정외의 프로그램이나 초등 교사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 키워드

① '다름' 혹은 '다문화'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연수 혹은 강의프로그램의 경험

나여훈_유네스코에서 개최하는 2박3일 교사연수 프로그램 경험

제가 현재 대학원에서 "국제사회문화연구"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많던 분야인지라 연수를 찾아다니려고 노력하는데 유네스코에서 개최하는 교사연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프로그램이었는데, 다양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도움도 많이 되었구요.

민경란_아직 초등에서의 미술연수의 기획은 대체로 장르별(감상지도, 디자인...) 또는 다양한 수업 사례 등의 주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름이라는 주제관련 연수경험 없음)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화두가 될 만한 내용을 밀도 있게 접근하면 훨씬 재미있으면서 생동감 있는 수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화적인 체험을 통한 개념을 깨닫고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의미들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교사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②. 시범운영 시간인 3시 ~ 7시 사이에 교사들의 참석가능성

보통 초등학교 5,6학년의 경우 오후 2시 반 정도에 수업이 끝납니다. 가까운 경우가 아니라면 3시 수업 참석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젊은 교사들의 경우 고학년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3시 30분 정도에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2학년 수업은 점심식사지도까지 포함해서 1시 즈음에 끝납니다.
(금요일은 2시) :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3-6학년 수업은 6교시 수업으로 대체로 3시 즈음에 끝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1시이나 학교(교원)행사가 자주 있음)

수업을 빠지고 가는 것은 특별한 출장이 아닌 이상 어려울 듯 하고 1-2학년 교사들은 대체로 연령층이 높고, 대체로 의욕이 많은 분들은 시간상의 어려움(고학년)이 있을 듯 합니다.

경기지역 초등학교에서 공문에 의한 출장이 아니면 개인 연수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쉽지 않은 데 서울지역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듯 하군요.

만약 이 연수가 출장 가능한 거라면 3시라도 출장을 달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율연수라면 좀 어려운 시간입니다. 저학년은 1시 고학년은 3시에 수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연수할 때 출장연수가 아니면 보통 오후 6시부터 합니다.

③ 교과과정 속에서 '다름'이나 '다문화'와 연결될 수 있는 내용 찾기.

나여훈_교과과정에서 다름이나 다문화와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교과에서는 사회과가 가장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다름과 다문화를 시도하고 있는 교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6학년에서 배우는 세계 관련 부분에서 더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도덕 교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교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름이나 다문화와 연결지어 가르칠 수 있는 학습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민경란_학교에서는 주로 다름의 인식을 다른 작품과의 비교하는 감상 수업이나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 장르간의 다름 인식,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적 차이(저학년의 의상꾸미기)를 경험하는 정도의 수업이 있을 듯 합니다.

다름이 차별로 이어지는 문제는 고학년에서 다룰 수도 있는 주제이기는 하나 미술교과에서는 잘

접근하지 않는 주제인 듯합니다. 다양한 시각 속에서 서로의 다른 존재로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접근이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김영주_다름과 다문화는 굳이 연결한다면 도덕시간과 연관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재량 시간이나 특활시간을 이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④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교과과정외의 프로그램이나 초등 교사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 키워드

나여훈_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교과과정 외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계발활동 시간에 운영하는 합창반, 만화반, 다양한 공예반, 음악 감상, 합창, 댄스, 미술관련, 독서 관련 부서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교사 개개인의 특기나 관심분야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 부분은 결국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느냐 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관심분야나 특기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 선생님의 바램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준비가 너무 복잡하거나, 아이들이 준비해야할 것이 많거나 하는 부분이 많으면 학교현장에서 실시가 좀 어렵습니다.

김영주_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통 선생님들은 여러 교과를 모두 가르치다보니 문화, 예술, 교육이란 말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결합된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 생각에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주제나 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좀 더 자세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 상태에서는 무엇이라 자세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2)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 지점

교사연수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이런 고민의 지점들이 교사 개개인의 특기나 관심분야를 넘어서 문화예술교육 매개자로서의 진정한 고민과 실천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작용하며, 다양한 방법론으로 모아져 교육환경에 생기를 일으킬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을 아이들에게 적용시키고 성숙시키는 일은 교사와 아이들 모두에게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한 걸음씩 나아갈수록 다양한 실험과 적용이 이루어지고, 정보들의 공유가 가능하게 된다. 이 실험과 적용은 교사 자신에게도 열린 교육을 체화시키는 경험을 가져다 줄 것이다. 교

사들은 교육의 핵심적 매개자이기 때문에 교사가 문화예술 활동을 교육과정에 접목시켜 스스로 즐길 수 있다면, 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크게 두 가지의 흐름으로 초등학교 교과정과의 맥락을 개진해 보자.

첫 번째는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통합적 이해를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교과목을 분석해 연계의 틀을 짜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과학시간에 동물의 약육강식에 관한 수업이라면 환경파괴로 인한 천적이 사라지고 특종 개체수가 증가하는 피해사례와 함께 다른 교과목과 연관시킬 수 있는 교과목을 찾아볼 수 있다. 사회영역의 자본주의 발달과 소득격차의 심화 빈곤층의 발생에 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 국어 교과목의 글짓기를 통해 환경과 사회 그리고 나와 의 관계에 대해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진행과정의 사이사이에 이해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문화예술적 요소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시각이미지의 적절한 활용의 예를 들어보자. 사진을 통해 동물의 생태와 환경파괴 지구온난화 문제를 시각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사진을 나눠주고 사진 위에 페인팅을 하게 한다. 살고 싶은 환경을 아이들이 사진 위에 페인팅을 한다. 지우고 싶은 것 위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펼쳐지게 하는 것이다.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리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는 창의적 실험이 흥미를 가져다 줄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문화 예술적 소재를 중심으로 교과목에 연결시키는 방법이다.

그림(회화)의 예를 들어보자.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만화, 스케치 등 다양한 세부장르가 있다. 만화를 중심으로 교과목에 적용시켜 보는 사례를 생각해 보자. 아이들에게 <친구 만들기>라는 주제를 주고 3~4명의 모둠을 만들어 연극을 해보도록 한다. 즉석에서 연극의 내용들을 만들어가면서 이야기를 쓰면 이는 국어교과목에 연결된다. 연극을 구성하며 배역을 정하고 협동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과정을 자연스레 익힐 수 있다. 이는 사회교과목에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교육환경의 조건과 절차에 따라 적절한 적용이 관건이 된다. 이렇듯 문화예술교육의 통합적 인식은 교과목과 만나 새로운 교육의 장을 형성할 수 있다.

3. 주제중심 교사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1) 주제 중심 프로그램의 교과 통합 가능성

통합적 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어떤 주제를 중심에 두고 교과와 통합하느냐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통합 교육과정은 경험의 선정과 조직에 강조를 두면서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각 학문 또는 지식의 체계에 따라 분화된 분과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교과간의 엄격한 울타리를 고려하지 않고 각 교과의 지식을 학생의 흥미 중심, 문제 중심, 특정 제재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재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통합교과용 도서 구성의 배경과 이론적 기초』 중 발췌〉

위의 연구자는 각 교과가 흥미중심, 문제 중심, 특정 제재 중심으로 재구성됨을 지적했다. 주제중심 교육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그동안은 교과목의 틀 안에서만 관련 논의가 진행된 관계로 주제중심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는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통합적 교육의 개념도 제7차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서 자리 잡았으며, 문화 예술적 요소라는 적극적 개입의 도구로 인해 활용가능성이 더 커졌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통합 교육과정이 표방하고 있는 것은 ‘활동중심 주제에 의한 통합적 운영’으로, 이것은 개인적, 사회적 필요를 교육의 핵심으로 끌어들이는 한 가지 방편이다. 즉 활동중심의 주제는 학습자의 흥미와 필요뿐만 아니라 생활사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통합 교육과정은 ‘교과로서의 통합교과’라기 보다는 ‘통합적 운영으로서의 통합교과’의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는 기존의 통합 교육과정에서 토의되어 왔던 ‘교과와 교과간의 통합’ 문제에서 벗어나서 ‘교육과정에 대한 통합적 접근’으로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용성, 『통합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재인용〉

민용성이 제기한 ‘교육과정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핵심도 주제중심 교사연수의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곽병선과 민용성 두 연구자 모두 주제중심 프로그램과 교과통합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은 사회적 삶의 기반으로 인간이 성장해야 할 광범위한 지식의 활동이다. 삶과 교육이 바라보고자 하는 가치는 성숙된 사회적 인격형성을 만들고자 하는 지속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2) 주제와 교과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한다. 하지만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는 지식은 변화에 따르는 능동적인 대처가 용이하지 못하다. 주제중심의 프로그램 적용은 이러한 교과의 한계성을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교과와의 통합이 적절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지금껏 통합적 교육, 주제 중심 교육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 질문은 역설적일 수 있다. 다만 실천적인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 맥락의 이해에 접근하는 논리의 과정은 필요하다. 우선 사회적 이슈가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교과목과의 접목이 다양해질 수 있다. 이를테면, 유전자 복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면 사회 과목, 과학 과목의 틀에서 이를 논할 수 있으며, 생명윤리, 다름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수업을 통해 인식시킬 수 있다. 물론 사회적

이슈를 아이들의 교육수준에 맞게 재구조화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문화 예술적 요소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과와의 결합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이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이며, 교사는 창의적 사고로 통한 활기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했던 주제와 교과의 결합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전혀 엉뚱한 결합이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 어떤 주제를 정하고 어떤 교과와 결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문화예술교육의 적극적 활용으로 인해 가변적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교육의 틀이 다양해지고 범위의 경계도 허물어져 통합교육으로서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4.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사례조사

1) 통합교과 교사연수프로그램 사례

부산 남항 초등학교 - 통합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열린 교육의 실천

열린 교육이 미래를 살아갈 현재의 아동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이후 학교 현장은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환경적인 변화는 물론이요, 우리 교사들의 의식 변화와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의 변화가 눈에 띄게 바뀌고 있다. 열린 교육이 성공적으로 교육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방법의 개선과 병행하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곧 이러한 활동은 현장의 교사들에 의해서 학습활동을 개별화하고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것으로 집약해 볼 수 있다.

통합 교육과정 적용은 교과간의 중복 내용을 줄이며, 교과와 생활과 관련을 지어 실제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며, 학습의 주체가 전체적인 통합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자인 아동 개개인의 통합적 인지구조나 관심에 비중을 둔 통합 교육과정의 적용은 열린 교육의 기본 취지와 부합된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지도하는 활동은 열린 교육의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특성과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 중심의 통합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본교에서는 「교육과정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집중 세미나에 이어 실습 중심의 「교과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해 교육과정 작성을 위한 전문성 함양을 위한 심화 연수를 가지려고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과 내 통합, 한 교과와 다른 교과와의 교과 간 통합, 교과와 교과와의 통합 등으로 구분하여 통합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시범하려고 한다. 이러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재구성하고 실제 수업활동에 적용해 보는 본교의 협력학교 활동은 열린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보다 활성화시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리라 본다.

운영의 목적

수업 지원 협력학교운영의 목적은 통합 교육과정의 재구성 및 적용을 통해 아동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학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첫째, 학교 수준의 통합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둘째, 작성한 통합 교육과정을 교수-학습 활동에 적용하며
 셋째, 이를 통해 열린 교육 활동을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아동의 자기 학습능력을 더욱 신장시켜 나간다.

개선사례

가. 통합 교육과정 구안을 위한 직원 연수 연중 실시

- (1) 자체 연수-통합 교육과정을 구안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전 교직원의 이론 및 실기 연수 연중 실시
- (2) 초빙 연수-통합 교육 관련 이론과 실제 (열린 교육 지원단 및 전문교수 초빙)
- (3) 워크숍-학년별 팀을 구성, 통합 교육과정 작성을 위한 작업 활동 실습
- (4) 우수 학교 탐방 및 관련 기관 자료 수집

나. 학교 수준 통합 교육과정 재구성 작업 절차

- (1) 팀 구성 및 교과별 내용 분석표 작성
 - (가) 통합 단위 개발 팀 구성-동학년 교사
 - (나) 교과서 내용 분석표 작성
 - ①학교 교육과정의 연간 진도 계획표와 교사용 지도서 검토
(여러 명의 교사들이 교과 분담)
 - ② 교과의 내용 분석표 작성
 - 관련교과의 단위, 주제 추출
 - 교과간, 교과 내, 교과 외로 분류
 - 통합 주제명 정하기
 - 교과의 내용 분석표 작성
- (2) 통합 단원의 학습 내용 결정
 - (가) 통합 단위 개발을 위한 중심 단위 결정하기

- ① 다른 교과와 활동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가?
- ② 학습자들이 흥미 있어 하는 제재를 사용했는가?
- ③ 통합 단원을 운영할 경우 자료 이용은 쉬운가?
- ④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가?
- ⑤ 실험, 현장 연구, 보고서 등의 활동을 끌어들이 수 있는가?

(나) 통합 단원의 학습 내용 선정하기

- ① 단원 목표는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순서대로 적되, 기호를 붙여 구별 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중심 단원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교과서의 내용을 찾아 첨가하고 중심

단원과 다른 교과와의 관련 내용표를 완성했다.

- ③ 관련 있는 내용들을 묶어 중심단원의 주요내용에 관련된 여러 교과와 학습 내용표를 작성했다.
- ④ 관련된 여러 교과들의 내용을 포함하는 통합 학습의 내용을 찾아 통합 단원의 학습 내용을 적고, 이들 학습 내용을 대표하는 소단원명을 정하였다.
- ⑤ 통합 단원의 소단원 내용과 순서를 결정하였다.
- ⑥ 통합 단원에 포함될 소단원들에 필요한 시간 수를 예측하여 첨가하였다.

(3) 통합 단원의 계획

- (가) 단원명 결정하기
- (나) 단원 개관 작성하기
- (다) 단원 목표 정하기
- (라) 통합 단원의 단원 계획 구체화하기

(4) 통합교육과정 재구성 일람표 작성

다. 통합 교육과정 학습 지도 과정 안 고안

통합 교육과정을 교수-학습 활동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개별화 학습, 협동 학습, 자리 학습, 집단학습과 개별학습의 병행학습, 토픽학습, 프로젝트 학습에 관한 여섯 가지의 학습 형태에 관해 학습 지도 과정 안을 고안하였으며 이를 학습 내용에 따라 선택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학습에 적용한다.

라. 열린 교육 수업모형 설정

(1) 개별화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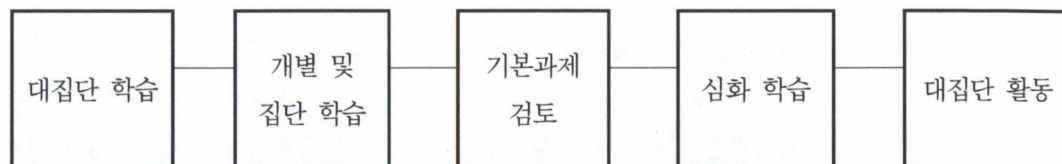
(2) 자리 학습



(3) 협동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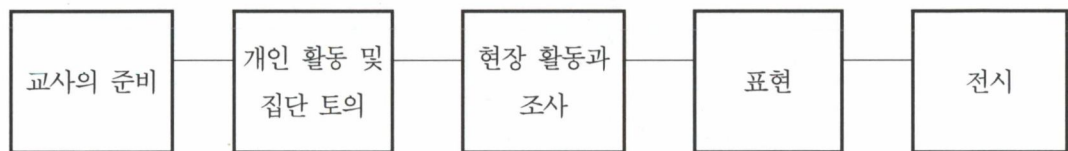
(4) 집단과 개별 학습의 병행학습



(5) 토픽 학습



(6) 프로젝트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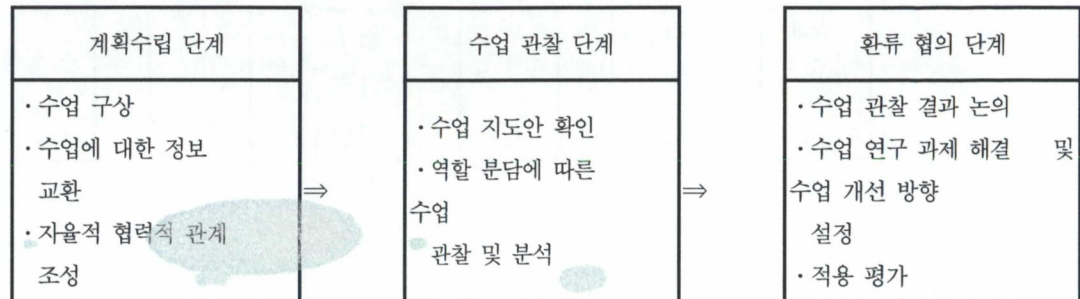


마. 통합 교육과정 학습 지도안 작성

다음의 절차와 같이 전 학년, 전 교과에 걸쳐 재구성한 통합 교육과정 단원에 대한 교수-학습 지도 과정 안을 작성하였으며, 특히 통합단원(통합주제)설정의 이유를 밝히게 하여 통합하게 된 근거나 통합으로 인한 장점을 밝히도록 한다.

1. 통합 단원명(통합 주제)
2. 통합 단원(통합 주제)설정의 이유
3. 통합 단원(통합 주제)의 목표
4. 통합 단원 지도 계획
5. 교재 연구
6. 본시 학습 계획안
7. 평가 계획

바. 통합 교육 과정안의 수업 적용 과정



2) 다문화이해 교육프로그램 사례

유네스코 -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이해교육 교원직무연수

유네스코에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평화의 문화를 건설하고자 하는 유네스코의 교육운동으로 세계화, 다문화이해, 평화,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교육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보편적인 가치관과 삶의 태도, 지식과 기술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이해교육운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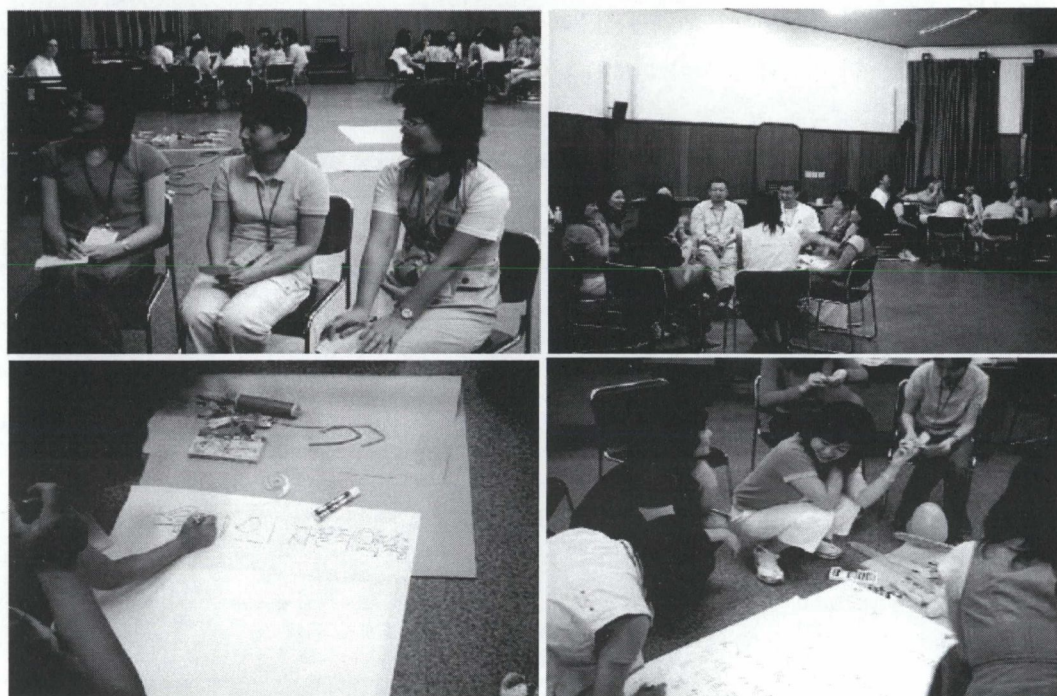
국제이해교육운동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원직무연수는 1997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교육 인적자원부 지정 국제이해교육 교육기관으로 처음 실시하였고, 아태지역 교원연수의 한국 사업으로 2001년부터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지역교육청의 지정을 받아 특수 분야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서 재량학습 및 교과 담당교사로서 국제이해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교육을 통한 평화의 문화 창조를 실현한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국제이해교육 교수학습 및 그룹 활동을 통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민 나아가 세계인들과 더불어 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교사의 자질과 폭을 넓힌다. 교사의 인권존중 태도 세계관, 가치관, 참여의식, 교사상 등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환 숙성시키는 과정을 통해 21세기 교사로서의 자세와 역량을 재정하며 교수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편견, 갈등에 대한 협상과 중재방법을 익혀 교사 간, 교사와 학생 간 교사

와 학부모간의 관계를 사랑과 이해로 슬기롭게 대함으로써 학생들이 즐기면서 배우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초석이 되도록 한다.

〈유네스코 제6차 국제이해교육 교원연수 프로그램 세부안〉

	제1일	제2일	제3일	제4일	제5일
8:00-9:00		아침식사			
9:00-10:40		[강의 1] 세계화와 국제이해교육 -김영화 교수-	[강의 3] 지속가능발전교육과 더불어 사는 학교 -이선경 교수-	[강의 5] 평화의 모색, 평화의 실천 -이대훈 사무처장-	[워크숍 7] 국제이해교육 확산을 위한 참가자 제언
10:40-10:50		휴 식			
10:50-12:30	이천 아태교육관 이동 등록	[강의 2] 인권적 삶을 위한 실천 방안 -강순원 교수-	[강의 4] 아랍·이슬람 세계의 이해 -손주영 교수-	[워크숍 6] 평화로운 세계, 평화로운 교실	11:00-12:00 수료식
12:30-14:00	점심식사				
14:00-15:40	[특강] 국제이해교육 철학과 한국의 경험 -정두용 회장-	[워크숍 2] 세계화와 인권	[워크숍 4]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문화 존중	[실습 및 기획 1] 국제이해교육 수업모형 개발	출 발
15:40-15:50	휴 식				
15:50-17:30	[워크숍 1]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교사의 역할 -강대근 원장-	[워크숍 3]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워크숍 5] 다문화 사회의 교실	[실습 및 기획 2] 소그룹별 발표 준비	
17:30-18:00	정리 및 자기평가				
18:00-19:00	저녁식사				
19:00-20:00	[만남의 시간 1] 하나 되는 만남	[만남의 시간 2] 다름과 소통 -홍세화-	[체험활동] 놀이로 배우는 국제이해교육	[발표] 국제이해교육 수업모형	
20:00-21:00				나눔의 시간	



〈사진-유네스코 제6차 국제이해교육 교원연수 프로그램 진행 모습/출처_유네스코 홈페이지〉

주요 내용

- 국제이해교육 이론 및 방법론 이해
- 국제이해교육 주제 영역별 내용 탐구 및 토의
- 국제이해교육 수업 모형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3) 해외 사례

영국 - 글로벌 시민교육 과정 (영국 Essex 지방 국립학교의 사례)

Essex의 앵글로 유러피언 학교는 국립학교로서는 처음으로 IB¹⁾ Diploma 과정을 도입하고, 전문 언어학교로 등록되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기초한 실제 참여와 행동,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고취와 동기를 부여하는 글로벌 시민활동 프로그램을 핵심 교육과정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다.



〈사진 -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아이들 / 영국사례〉

이 학교는 '유럽'과 '국제'이해교육을 교과과정의 한 부분이 아닌 중심으로 삼고 있다. 학생들이 사람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다양한 외국어와 외국 문화를 체험할 때, 최고의 국제이해교육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다양한 언어와 문화 교류, 교환 프로그램을 과외활동 외에도 일반 학과 일정 속에 포함시켜 제공하고 있다.

1)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과정은 1968년 간문화적 이해와 존중에 기초한 학교교육을 통해 보다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 하에 비영리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IBO)이 운영하며, 국제적으로 인증된 프로그램으로 3세부터 대학입학 전 단계까지를 포함한 초등, 중등교육 프로그램이다. 2004년 현재 117개국 1,421개 학교에서 약 20만 명의 학생들이 이 과정을 밟고 있다.(<http://www.ibo.org>)

이 학교는 매년 약 120명의 학생들을 2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15개국 유럽 파트너 학교에 방문시키고 있으며 언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외국 학생들과의 서신 교환, 전화나 이메일로 통신하는 방법도 국제이해교육의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7학년부터 벨기에에 있는 Wegimont 고성을 방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8학년 학생들은 프랑스의 5개 학교와 협정된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9학년 학생들은 독일의 4개 학교와의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0학년 학생들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6개 파트너 학교들 중 선택하여 해당지역 학교에서 4~8주간 공부한다. Sixth form(대학입시 준비과정)학생들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서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Business Studies 견학으로 체코를 방문하며, 예술 관련 견학 프로그램으로 파리와 암스테르담을 방문한다. 최근에는 벨기에, 아일랜드, 덴마크 등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특별활동, 과외활동으로서 작년 10월에는 11학년과 Sixth form 학생들이 유럽 전역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런던 크로이든(Croydon)에서 열린 UN회의를 모델로 한 국제학생회의에서 '유네스코에서의 영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올해 3월에는 학생 대표 2명이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이벤트 참여는 학생들에게 UN 사업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주고, 국제관계에서 타협하고 협상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저학년 학생들은 보스니아에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는 일을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하였다. 7학년 학생들은 러시아 학교 학생들과 펜팔 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특별활동반인 코스모스 그룹은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캐나다 출신 유엔기구 임원과 만나 국제기구 사업에 관한 경험담을 듣고, 유네스코에 대한 영국의 입장에 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Sixth form학생들 14명은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유럽 4개국 학교들과 함께 사회문제 미디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올 4월에는 40명의 스웨덴 학생들이 일주일간 이 학교에 방문하여 수업에 참여하면서,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 학교는 외국 교사들의 방문도 환영하고 있는데, 지난 1월에는 말라위에서 온 과학교사가 일주일간 방문하기도 했다. 이 학교 교사들은 현재 그리스와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파트너 학교 교사들과 인 터넷을 활용하여 에너지, 수에 관한 주제를 놓고 유럽 과학교재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 교과과정은 일차적으로 유럽적 맥락에서 운영되는데, 유럽 시민상(The European Citizenship Award), 교사 교환 프로그램, 특별반의 국제 그룹 등 다양한 국제 학생회의와 모의

유엔기구 회의 참여, 세계 과학 프로그램 개발 협력, 국제인사 초청 간담회, 인도와 보스니아 지원 사업, 특별 해외견학 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III. 프로그램 설계

1. 설계 원칙
 2. 설계 내용
 3. 운영 계획
-

III. 프로그램 설계

1. 설계 원칙

1) 연수 프로그램의 대상

1990년 이후 국제결혼 비율이 증가하면서 우리사회의 다문화 가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04년 전체 한국 혼인건수 310,944건 중 국제결혼은 35,447건으로 전체 11.4%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도 보다 38.2% 증가한 수치이다. [통계청, 2004년 혼인 이혼 통계결과] 또한 2005년에 결혼한 우리국민의 13.6%가 외국인을 배우자로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 총각은 3분의 1 이상이 외국인 신부를 맞아들였다. 통계청은 30일 전국의 읍.면 사무소와 시.구청에 혼인.이혼 신고서를 분석, 이 같은 내용의 [2005년 혼인 이혼 통계]를 발표했다. [중앙일보 2006-03-31]

그 결과 2000년 이후 농촌지역의 초등학교에서부터 국제결혼 2세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05년 국제결혼 자녀의 학생수는 도시에는 3,324명, 농촌에는 2,390명으로 상대적으로 농촌에는 오히려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2005.11]

국제결혼가족의 자녀양육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 꼽는 것이 양육비용, 사교육비비용의 문제라 할 때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이 겪는 집단따돌림의 경험은 17.6%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34.1%),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2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2005: 137-9].

따라서 국제결혼가족의 자녀들을 한국인으로 인정하고 성장시키는 문제를 우리사회와 우리 교육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결혼가족과 그 자녀들을 대상

으로 하는 생활지원과 교육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또 여러 단위의 사회취약계층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수 프로그램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취지와 걸맞게 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 사회적인 문제를 공교육 안에서 실천적으로 보듬어 안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런 목표 설정에 따라 이 주제의 교육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 연수 프로그램의 목표

공교육 현장에 국제결혼가족의 자녀들이 겪는 집단따돌림의 경험은 한국의 아이들이 다문화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엄마가 달라서 또는 아빠가 외국인이라서 우리들과는 다른 아이로 확정해 버리는데 문제가 있다. 다르다는 경험과 다를 수 있다는 이해의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 부족하다.

본 연수는 다름이 갈등이 되고, 차이가 생각의 유연성을 가로막는 공교육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대화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을 위치시켜 보는 경험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설득하지 않고, 문화적 경험으로 깨닫게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취지를 살리고자 연구되었다.

또한 이를 교사 연수를 통해 공교육에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는 근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설계 내용

1) 주제 설정

: '다름'을 만난다는 것, '차이'를 이해하는 감수성

어떤 특성의 권력을 획득하여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자신 이외의 대상에게 강요하는 데에서 다수성과 소수성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여성, 장애인, 외국인노동자와 이민족, 동성/양성애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인간과 대립되는 의미로의 자연이나 가족의 경우 일반가정과 달리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사는 자연 가족을 비롯하여 편부모 가족, 재결합 가족, 고아원, 입양 가족 등 타자화 되거나 소수자의 위치에 선 대상 범위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 사회는 '다수가 선이고 정의'라는 논리로 이러한 많은 소수자를 배제시켜왔다.

이것은 단지 다수자 대 소수자로 이분화 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또다시 다수자 내에서의 각 개인마저도 다수자의 기득권세력에 편승하여 수동적인 주체로 만들거나 그 논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스스로를 배제시켜 타자화된 또 다른 소수자로 전락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미 다양한 방식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세계 각국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사회는 소수자 혹은 나와 다른 타자에 대해 아직도 성숙한 정치적 태도나 입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차이를 갖는다.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이든 가족을 구성하는 형태의 차이든 내국인과 이민족의 차이든 이미 이러한 사회의 다양성에서 오는 '차이'는 우리의 생활 도처에서 흔하게 마주치는 현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기득권이 보장되는 집단의 편의에 따르는 사회의 분위기는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하고 풍요로운 사회로의 전환속도를 더디게 만들어 왔고 현재의 사회현상과 그 사회현상에 맞춰가는 인식의 사이에 커다란 괴리를 가져오게 되고,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풍토는 빠르게 아이들에게도 확산되어 아이들 사이에 왕따가 심각해지는 등의 또 다른 사회문제를 연속해서 파생하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 하는 자세의 전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타인도 그 자체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이야만 한다. '차이'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차별'로 이어질 때 많은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차이'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중요하다.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전제위에서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꿀 수 있고 지속가능한 세계 공동체로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한 세상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세상인 것이다. 주변에서 쉽게 마주치는, 나를 둘러싼 나와 관계된 모든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바라보며 소통하는 것, '다름'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일이다.

2) 프로그램 구성

ㄱ) 기본 개념

〈'다름'과 '차이'에서 공공성 찾기〉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나를 둘러싼 모든 대상들이 타자화된 대상이 아니라 개별 주체라는 인식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교사와 아이들이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생각의 중심을 유연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

ㄴ) 기본 구성

▶ 연수 프로그램의 이해 : 처음 본 연수를 통해 만난 교사와 교사, 그리고 기획자와 교사가 새로운 방식의 마음 열기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만나고, 연수 프로그램 안내를 통해 본 연수의 목표와 취지를 공유하게 된다.

▶ 이론 교육 : 본 연수의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교사의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세 개의 강좌를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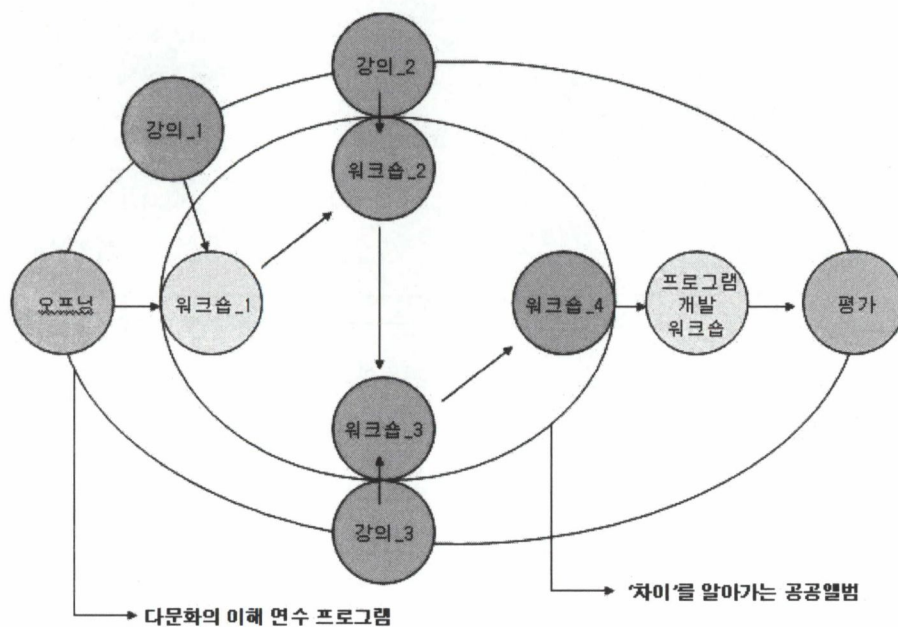
▶ 다문화 체험 워크숍 : 교사가 스스로 '차이'와 '다름'의 상황 속에 있어 보는 〈'차이'를 알아가는 공공 앨범〉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한다.

▶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 이론 교육과 체험 워크숍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새로운 주제 통합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본다.

▶ 평가와 토론 : 개별 프로그램의 경험과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본 연수의 학교 현장 활용 가능성과 연수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이해의 성과들을 토론한다.

현장 활용 가능성과 연수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이해의 성과들을 토론한다.

〈프로그램 구성도〉



〈프로그램 구성표〉

시간 편성	중심 내용	세부 내용
1시간(1회) 총 1시간	연수 프로그램의 이해	-1시간 연수 인트로 -새로운 방식이 마음 열기 프로그램 -연수 프로그램 안내
1시간 + 2시간(2회) 총 5시간	이론 교육	-1시간 1강좌, 2시간 X 2강좌 -주제 중심 프로그램 사례 -다문화 이해의 새로운 시선 -차이를 주제로 하는 예술과 예술가
2시간(4회) 총 8시간	다문화 체험 워크숍	-수평을 맞추다(2시간) -꿈을 맞추다(2시간)

		-함께하다(2시간) -나누다(2시간)
2시간(2회) 총 4시간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30분 강의 / 프로그램 개발 소개 -주제 선택(40분) -통합 교과 설계(40분) -프로그램 크리에이티브(40분) -세부 과정 설계(30분) -발표하기(60분)
2시간(1회)	평가와 토론	-토론60분(통합교과, 주제중심,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 -연수평가 토론(60분)

3) 세부 내용

ㄱ) 연수 프로그램의 이해

▶ 서로 인사하기 : 미리 만들어 둔 이름표를 선택하고 자기 소개하기

미리 만들어진 이름표는 교사들의 본명이 아니라 별명을 선택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다문화에 관계된 단어를 조합한 이 별명들을 미리 준비해 각자 마음에 드는 이름을 선택하게 하고,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며 자기소개를 시작한다.

▶ 연수 안내하기 : 연수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동영상상을 준비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이 동영상은 아이들이 오해하는 외국 문화의 동경 또는 평가 절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국제결혼 자녀들과의 다름과 같음, 또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를 쉽게 풀어 본다.

ㄴ) 이론 교육

▶ 1강의 : 주제 중심 프로그램 사례 / 김주환

어떤 주제가 아이들의 관심사 일까? 그 주제로 통합적 교육이 가능한가? 오늘의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 그리고 성공적인 교육 사례를 살펴본다.

▶ 2강의 : 다문화 이해의 새로운 시선 / 김찬호

‘다름’과 ‘차이’를 보여 줄 수 있는 다양하고 풍요로운 일상의 이야기를 인문학적 관점과 연결하는 문화현상과 교육사례로 나누는 자리다. 누구나가 겪어 볼 수 있는 다문화적 상황을 토대로 ‘다름’과 ‘차이’를 인류학 관점에서 강의로 구성한다.

▶ 3강의 : 차이를 주제로 하는 예술과 예술가 / 양철모

예술분야의 작가들이 인식하는 ‘다름’과 ‘차이’를 이야기해 보자. 그들이 표현하는 하는 ‘다름’과 ‘차이’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작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예술적 가치와 사고의 다양성을 경험해 본다.

ㄷ) 다문화 체험 워크숍

워크숍의 구성은 ‘수평을 맞추다’, ‘꿈을 맞추다’, ‘함께하다’, ‘나누다’의 네 과정으로 이루어진 ‘다름과 차이’를 통한 사회의 다양함을 인식하는 감수성을 기르는 훈련을 목표로 한다. 각각의 과정은 선천적인 차이, 후천적인 차이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나와 다른 너의 조건과 상황을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경험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다른 그룹들과 소통하는 단계로 나누어진다.

▶ 수평을 맞추다

키 맞추기, 무게 맞추기, 피부색 맞추기, 비교 문장 놀이 등 간단한 놀이를 통해 선천적으로 가지는 차이를 드러내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몸으로 경험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차이는 개인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러한 차이들이 모여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한다. 5~7명이 모듬이 되어 참여자간의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제시된 조건들을 해결해간다.

>> 키 맞추기

누가 크고 작고를 단순히 비교하는 과정이 아니고 참여자 전원의 키를 최대한 똑같이 맞추는 놀이이다. 벽면에 150cm, 160cm, 180cm, 200cm 높이로 라인을 만들어 두고 각 모듬 별 지시 카드를 선택하고 모듬별로 다른 높이를 제시한다. 준비된 책이나 박스 등을 쌓거나 무릎을 구부려 제한된 높이에 전원의 키를 맞추고 과정과 결과를 사진을 통해 기록한다.

>> 무게 맞추기

기다란 널빤지와 무게 중심을 나눌 명석을 준비한다. 참여자들은 널빤지 위에 모두 올라가 자신들의 무게중심을 이동하며 수평을 맞춘다. 무게의 차이를 인지하는 것과 동시에 참여자들의 몸의 무게를 이용해서 수평을 맞춘다. 사진을 통해 수평을 맞춰가는 과정을 기록 한다.

>> 피부색 맞추기

참여자들의 팔 색을 비교하고 최대한 같은 톤으로 맞추는 놀이이다. 준비된 화장품을 이용하고 맞춰가는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한다.

>> 비교 문장 놀이

참여자들이 짝을 이뤄 서로에게 발견할 수 있는 차이로 문장들을 만든다. 단어 맞추기 키트를 준비하고 게임을 통해 먼저 만든 문장을 열어 보이고, 다른 참여자가 괄호안의 문장을 채우는 게임이다. 정답은 없고 서로간의 차이를 발견하는 단계에서 멈춘다. 키트 뒤에는 문장과 관련된 참여자의 이름을 적어 놓는다.

눈이 작지만 ()는 크다.

키가 크지만 ()는 작다.

피부는 검지만 ()는 희다.

얼굴은 크지만 ()는 작다.

▶ 꿈을 맞추다

후천적으로 생겨나는 차이에 대한 생각을 다시해보는 과정이다. 미래의 자신의 꿈과 친구의 꿈을 비교하고, 내가 중심이 된다는 생각만큼 타인의 생각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친구나 동료의 미래 구성원이 되어보는 역할놀이를 통해 스스로 자발적인 주변인이 되어본다.

>> 역할놀이

꿈을 맞추는 일은 후천적으로 생겨나는 차이에 대한 인식을 수용하고 자신의 미래나 꿈을 실현하기에 앞서 친구나 동료의 미래의 구성원이 되어보는 역할놀이를 통해 스스로 자발적인 주변인이 되어본다. 2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모둠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공유된 참여자들의 20년 후의 모습 중 합의하에 하나의 꿈을 설정하고, 주인공이 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는 중심이 되는 이야기의 주변 역할을 수행한다. 준비된 소도구를 이용하여 누군가의 미래를 코스프레 형식을 통해 실현시킨다. 모든 과정은 사진을 찍어 기록 한다.

▶ 함께하다_공공앨범 만들기

주변부에서 중심부로의 언어와 문화를 능동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사회에서의 소수자로 인식되는 대상들을 포함하여 동료들과 주체적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스스로 그 이야기의 구성원이 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시뮬레이션 한다. '차이'를 사회를 이루는 다양성의 하나로 인정하는 감수성을 훈련하는 과정이다.

>> 공공앨범 만들기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과정의 스토리와 기록된 사진 소스를 이용해 앨범을 만든다. 사진에 기록된 모듬의 구성원 모두와 지정된 특정의 소수자-휠체어를 탄 사람, 교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아이, 이주노동자 등이 등장인물로 나오는 간단한 형식의 인권이야기를 만들고 10페이지 내외의 빈 노트에 풀라쥬로 구성한다. 앨범 안에 사진은 오려서 붙이거나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말 풍선을 달아 스토리를 전개할 수도 있다.

▶ 나누다_퍼포먼스

자신들이 만난 새로운 '다름'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퍼포먼스 등을 통해 발표하고 비슷한 조건과 상황을 개인 또는 집단이 어떻게 다르거나 같게 인식했는지를 비교해 본다.

>> 그룹 퍼포먼스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하고 모듬에서의 토론을 통해 다른 모듬과 공유할 방식을 정한다. 세 단계를 거치면서 자신들이 만난 새로운 '다름'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퍼포먼스 등을 통해 발표하고 비슷한 조건과 상황을 개인 또는 집단이 어떻게 다르거나 같게 인식했는지를 비교해 보고 서로 의견을 나눈다.

ㄹ)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 주제 선택 : 아이들이 동기부여 할 수 있는 테마를 선정하고, 이것이 교과와 연결되는 지점을 선택한다.

▶ 통합장르 설계 : 선택한 주제와 호홉이 가장 어울리는 메인 문화예술 장르를 선택하고, 그 장르와 연동되는 2~3개의 보조 장르를 결합한다.

▶ 프로그램 크리에이티브 : 주제와 교과 그리고 문화예술 장르를 창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새

로운 발상을 이끌어 낸다. 이것은 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다.

▶ 세부 과정 설계 : 프로그램 크리에이티브를 통해 창조된 프로그램에 살을 붙이는 작업이다. 시간, 장소, 대상 그리고 최초의 의도를 고려해 세부적인 실행 방법을 짜 나간다.

▶ 발표하기 : 동일한 과정을 경험한 교사들이 얼마나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지를 비교해 보고, 서로의 발상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ㄱ) 평가와 토론

▶ 주제 토론 : 통합교과, 주제중심,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의 주제를 주고 모둠별 토론을 유도하고, 이후 전체 토론으로 확대한다.

▶ 연수 평가 : 연수 전체에 대한 종합적 설문을 진행한다. 연수 주제 설정, 진행 방법, 현장 적용 가능성 등

〈프로그램 세부 일정표〉

시간	1회	2회	3회	4회	5회
3:00 ~ 4:00	오프닝 연수프로그램 설명 - 서로 인사하기 - 연수 안내하기	강의_2 다문화 이해의 새로운 시선	강의_3 차이를 주제로 하는 예술과 예술가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_1 - 주제 선택 - 통합장르 설계 - 프로그램 크리에이티브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_2 - 세부 과정 설계 - 발표하기
4:00 ~ 5:00	강의_1 주제중심 프로그램 사례				
5:00 ~ 6:00	다문화 체험 워크숍_1 - 수평을 맞추다 키 맞추기 무게 맞추기 피부색 맞추기 비교문장놀이	다문화 체험 워크숍_2 - 꿈을 맞추다 역할놀이	다문화 체험 워크숍_3 - 함께하다 공공앨범 만들기	다문화 체험 워크숍_4 - 나누다 퍼포먼스 그룹 퍼포먼스	평가와 토론 - 주제 토론 - 연수 평가
6:00 ~ 7:00					

3. 운영 계획

1) 운영 원칙

- ▶ 연수 교육과정이 현장 적합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강의중심 보다는 현장 실무와 실습 중심의 연수과정으로 편성하고, 참여식, 토론식 프로그램을 그 중심에 놓고 운영한다.
- ▶ 통합교육은 다른 장르교육보다 교육의 목표 설정에서 운영 원칙이 중요한 비중으로 작용한다. 운영 측면에서 교육 목표를 어느 범주까지 도달할 것인가에 따라 결과적인 목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초의 교육 목표와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반대로 운영의 유연성을 너무 제한하면 장르교육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가 만들어 진다. 이러한 운영의 감각을 교사연수에서 실험하고 그 결과를 교사들과 공유한다.

2) 평가 방법

ㄱ) 평가체계 제안

- ▶ 연수 대상자의 평가에 있어서 연수의 자율적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하도록 하면, 객관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한다.
- ▶ 지필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수행평가 등을 포함한 다양한 평가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다문화에 대한 이해력과 감수성은 선부른 평가 지표를 만들기보다는 장기적인 교육과 피드백을 통해 교육의 경험적 지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ㄴ) 평가 지표의 예

▶ 평가 기준

- 공공적 사고력 : 상중하
- 사고의 유연성 : 상중하
- 참여의 적극성 : 상중하

평가항목	평가지표	자기소개	강의	워크숍	개발	토론
공공적 사고력	타인을 이해하려 하는가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협업 과정은 합리적인가	상/중/하				
	공유 지점을 찾아가는가	상/중/하				
사고의 유연성	듣고 말하는가	상/중/하				
	발상이 새로운가	상/중/하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는가	상/중/하				
참여의 적극성	동기부여된 참여인가	상/중/하				
	문제를 도출하는가	상/중/하				

IV. 활용 방안

1.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
 2. 교육 현장에서의 기대 효과
-

IV. 활용 방안

1.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

본 연구의 목표는 교과 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문화예술분야 교사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다양성 및 다름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이끌어 낸 의미 있고 현장 활용이 가능한 교사연수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교수법에서 이미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적절하게 접목시키는 실행 매뉴얼 등의 방안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교사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나, 중등학교 교사 대상 연수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창작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확장 및 활용될 수 있다.

1) 중등학교 교사대상 연수프로그램

교사들이 현장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무엇보다도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자기 학습과 경험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도록 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 이론 강의와 다양한 형식의 워크숍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연수기간	중심내용	강의방식
2시간(1회)	이론강의	- 1시간 강의X2강좌 (다문화, 다름과 차이)

3시간(1회)	워크숍	- 1시간 다름과 차이 개념 내부토론 - 2시간 역할놀이 워크숍
2시간(1회)	이론강의	- 2시간 강의×1강좌 일상문화로부터 찾는 다름과 차이
4시간(1회)	워크숍	- 2시간 관련사례 소개 수업 - 2시간 워크숍 일상 속 다름과 차이의 사례 찾기
3시간×2회	워크숍	- 3시간 여행 떠나기 워크숍 - 3시간 꿈 찾기/디자인하기 워크숍
2시간(1회)	공유와 평가	- 모둠별 발표(60분) - 연수평가 토론(60분)

2) 초중고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에서 역점을 둔 주제중심 문화예술교육 방법론은 하나의 주제를 상정하여 국어, 사회, 미술, 과학 등 교과과목이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프로젝트 수업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가령 '내가 사는 동네'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과별 활동과 계발활동, 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국어	사회	미술	과학
우리 동네 고유 이름 조사하기	우리 동네 인문 환경 알아보기	우리 동네 자연의 아름다움 느끼기	우리 동네 자연 관찰하기/기록하기
우리 동네 전설 알아보기	우리 동네 생활 문화 조사하기	우리 동네에서 특별한 것 찾아보기, 이벤트 만들기	우리 동네 자연환경앨범 만들기
우리집 역사쓰기	부모님 직업 조사하기	동네 공간 가꾸기, 나만의 동네 여행기	우리 동네 자연환경 지도 만들기

2. 교육 현장에서 기대 효과

문화예술교육은 실재하는 삶과의 공존, 소통을 화두로 자신과 일상의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다. 나아가 삶에 기반한 주제와 내용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이것이 실제 삶과 어떻게 하나로 통합되어 녹아들 수 있는지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목표하는 기대효과가 지속가능성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확대 재생산방식을 교육 현장에서 과감하게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 1) 현장 교사들 간 통합교육을 위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한다.
- 2)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주제변주를 통해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을 기획, 실행한다.
- 3) 교육 현장에서 개념을 점검하고 수업에 적용해서 실험하는 가운데 교사와 관련 예술전문가와 활동가 등이 결합하여 보다 깊이 있고 정교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체계화될 수 있도록 연구모임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교육적 자극을 도모하고,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방법론을 통한 본격적이고 독창적인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의 기틀로 삼는다.

V. 결론 및 제언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다양성 및 다름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기반한 실천적인 교사연수프로그램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문화예술교육과 학교 현장의 다양한 교육영역과 만나 소통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연구의 출발로 삼았고, 기존의 교사연수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장르와 장르가 만나는 한계에서 벗어난 교과 및 장르 통합적인 접근과 새로운 교육적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하나의 주제중심 프로그램으로 여러 교육영역이 시범적 소통의 문을 열어가기 위한 실마리를 풀어나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법론은 문화예술 장르 간 통합과 경계 허물기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매개와 통합을 근간으로 하는 주제중심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수의 주제는 문화다양성, 일상, 공공성, 다수와 소수라는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 '다름'과 '차이'로 설정되었고, 이는 연수 전체를 관통하는 '다름과 차이 사이에서 공공성 찾기'라는 주제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1) 일상에서 다름과 차이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이론 강의 2) '다름과 차이'를 통한 사회의 다양함을 인식하는 감수성을 기르는 워크숍 3) 관련 수업 사례 소개 4) 적극적인 현장 적용을 도모하는 실행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통해 통합적 접근의 가능성을 확인시킨 주제중심 교사연수프로그램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고, 현장 적용의 유효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현장 교사와 관련 연구 개발자가 만나 서로를 위한 창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한 본격적인 심화연구가 실행될 때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교육과정의 총론적인 분석,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연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사연구모임 혹은 관련 인적 네트워크가 결합한 통합 교육 프로그램 연구 실무진이 꾸려져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내용의 수용성, 교육방법의 효과성, 교육시간의 적절성 등 사항들을 점검하며 입체적인 필드테스트를 거치는 가운데 현실적인 적용여부를 타진하여 단계별로 깊이 있고 정교한 주제중심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의 강점 중 하나는 삶과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예술이 교실로 들어와 교사나 학생들의 기본 지식에 공명하여 새로운 학습의 레퍼토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준다는 점이다. 많은 교육학자들은 이러한 교수법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교사들을 전문적으로 재교육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문화비평가이자 교육학자인 헨리 지루는 〈교사는 지성인이다〉(1999)에서 교사는 '변혁적 지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변혁적 지성인'을 관념과 사회적 실천을 중재하고 정당화하고 생산하는 자로 정의한다. 교사들이 깊은 사고로부터 멀어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이 학교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곽병선 - 통합교과용 도서구성의 배경과 이론적 기초

민용선 - 통합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 김인규 미술교사 인터뷰 기사 일부

김태리 - 영국에서의 국제이해교육 『내재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타자를 내면화하는 간문화 교육』

연구에 도움 주신 분들

연구참여자

- 책임연구원 조주연 /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대표
- 공동연구원 남정 / 벼레별 기억 대표
백현주 / 희망제작소
양철모 / 바라 스튜디오 대표
- 보조연구원 김선미 · 조성희 /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연구 기획 진행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인력양성팀 : 황지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